

2024 CAAs 우즈베키스탄 회의 참관기

오 재 창

대한공증인협회 부협회장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 공증담당변호사

1. 들어가며 – 간략한 회의 일정 및 개최지 소개

2024. 9. 10.(화)부터 11.(수)까지(공식 회의 일정)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주최로 2024년도 CAAs 총회 겸 제4차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CAAs(아시아지역위원회)는 Comision de Asuntos Asiaticos(라틴어)의 약어¹⁾로서 국제공증인연합회(Union Internacional del Notariado Latino²⁾, 이하 'UINL'이라고 함) 산하 대륙별 위원회(Continental Commissions) 중 아시아 지역 회원국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CAAs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레바논 등 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2024년도 회의에는 영상회의로 참여한 레바논을 제외한 8개 회원국 모두가 참석하였습니다. 일정 이틀째인 11.(수) 국제회의에는 UINL 소속 91개 회원국 중 CAAs 회원국(8개국) 이외에도 CCNI(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독일)과 CAAf(아프리카지역위원회) 위원장(베냉) 등을 포함한 24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하였습니다.

1) CAAs(라틴어) 표기의 불어, 영어 표기는 각각 Commission des Affaires Asiatiques(불어)/Asian Affairs Commission(영어)입니다.

2) 불어 표기는 Union Internationale du Notariat Latin, 영어 표기는 International Union of Latin Notaries입니다.

양일간 행사 중 첫째 날(9. 10.)에는 2024년도 CAAs 총회를 겸하여 아시아 회원국 간 전자공증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둘째 날(9. 11.)에는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주최 제4차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UINL 소속 참가 회원국들 간 자국의 상속등기 특수성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도 CAAs 총회 역시 그 의장국인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가 사마르칸트에서 주최를 하였는데, 그 회의에 UINL 회원국들이 배석자로 참석할 수 있었으므로, 사실상 한국을 비롯하여 UINL의 약 24개국 회원국 대표단이 CAAs 회의와 국제회의에 모두 참석함으로써, 대규모 국제회의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 대한공증인협회(KNA)는 협회장 박종순, 부협회장 오재창, 사무국장 김창호 등 3인이 참석을 하여, 협회장이 CAAs에서 전자공증 관련 발표를, 국제회의에서는 부협회장이 한국 상속등기에 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로서 1855년부터 러시아 영토(1924년 러시아 연방에 포함됨)가 되었다가 1991년 완전히 독립을 한 나라로서, 원래 13세기 몽골족에서 기원하여 14세기 칸 우즈베크 통치하에서 전성기를 누렸고, 지리적으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인접국에 둘러싸인 이중 내륙국으로서, 국토 면적은 약 448,900제곱킬로미터(km²)(2022, KOSIS)로 세계 56위에 해당하며, 전체 인구는 약 3,500만 명(2023, IMF), 평균인구 밀도는 1킬로미터당 82명, 국가총생산(GDP)은 약 818억 달러\$(2023, IMF 추정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710달러\$(2023, IMF 추정치) 정도로 세계 약 136위권에 달하여 개발도상국 중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국가이며, 수도는 타슈켄트입니다.



사마르칸트 도시는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적 도시 중 하나로 실크로드 중심지 중 하나인데, 지리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의 남부에 위치하면서 거의 그리스·로마시대의 도시처럼 기원전(최소 2,500년 전)부터 존재해 온 유서 깊은 역사를 지닌 도시로서 아름다운 건축물(레기스탄 등)과 풍부한 문화유산(아프로시압 등)으로 유명하여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로, 한국의 경주 이상의 의미와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한국 출발부터 사마르칸트 숙소에 이동할 때까지 간단 소개

원래 이번 회의 등록은 9. 9.(월)이었지만 한국 국적기가 이틀에 한 번 운항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에 위치한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한 후에도 그곳에서 회의 장소인 사마르칸트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 KTX에 해당하는 아프로시아프(Afrosiyob) 기차를 타고 2시간 이상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9. 7.(토) 오후에 출발해 거의 8시간을 비행하여 그날 밤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해서 곧장 예약한 호텔로 이동한 후 바로 취침을 했습니다.

그다음 날(9. 8. 일) 아침, 호텔 조식 후 곧바로 타슈켄트역에서 아프로시아프 기차를 오전 9시경 승차하여 약 2시간 20분을 달려 오전 11:20경 사마르칸트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일행이 역 건물을 나오자 사마르칸트시 공증인회 직원 2명이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 있었고, 이들이 우리를 태워서 일부러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을 잘하는 식당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중앙아시아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랑한 요리, 오쉬(OSH), 한국의 볶음밥에 해당하는 음식을 소개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현지 음식으로 처음 먹어본 식사였지만 우리 입맛에도 잘 맞아서 맛있게 먹었는데, 사마르칸트시 공증인회 직원들이 본인들의 공증인회에서 꼭 점심식사도 대접을 하라고 했다면서 점심 식사비도 자신들이 지불을 하였습니다.

이후 사마르칸트시 공증인회 직원들은 우리 일행들에게 숙소에 체크인하기 전에 식당 근처 재래시장(바자르)에 가자고 해서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이 직원들은 당시 사마르칸트에는 한국처럼 편의점, 슈퍼마켓이 거의 없고 생활용품 등은 오로지 재래시장(바자르)에서만 팔기 때문에 우리 일행들이 그곳에서 며칠 보내는 동안 필요한 물품을 미리 구입하라는 배려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바자르)은 생각보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고 취급하는 물품, 음식 등 종류도 매우 다양했지만 우리들이 당시 딱히 사고픈 물건이 없었고 선물로 사기에도 적당치 않아 결국 우리 일행들을 위해 수고해 준 사마르칸트시 공증인회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고 과일 등을 산 것이 그곳에서 구입한 물건의 전부였습니다.

그 후 직원들이 우리가 머물 컨티넨탈 호텔로 데려다주어 체크인을 하였고, 그 직후 근처 한국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바로 식당 인근에 있던 레기스탄을 잠시 구경한 다음 숙소 호텔로 돌아와서 사마르칸트에서 첫날을 보냈습니다.

3. 회의 전날(아프로시업 박물관 방문 및 회의 등록)

9. 9.(월) 오후부터 각국 참가자들이 회의 등록을 하도록 공지되었으므로, 오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사마르칸트의 대표적 유적지 중 하나인 아프로시업 박물관과 티무르 황제가 가장 아꼈지만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된 황후 비비 하눔을 추모하기 위해 건설한

비비 하눔 모스크를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아프로시압 박물관은 우선 그 입구에 대한민국 문화재청의 자금과 인원의 지원으로 최근 보수되었다는 안내가 있어서 입장할 때부터 뿌듯했는데, 그곳에는 무엇보다도 서기 655년경 당시의 궁전 벽화가 지금도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유명한 방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벽화에는 벽면과 천장을 거의 꽉 채우고 남은 정도로 규모가 크면서도 벽화 자체가 마치 최근에 그린 것처럼 생생한 색칠은 물론 화가의 솜씨 자체가 매우 훌륭해서 섬세한 인물·동물묘사는 물론 사용한 색감 등이 여러 색깔을 화려하게 채색하여 그 생동감이 1,300년을 뛰어 넘은 현재에도 그대로 전해져서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한국 방송, 여행잡지의 소개로 위 벽화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도 한두 번을 꼭 보았을 것으로 확신을 하는데, 위 벽화에는 여러 제국의 사신도 특히, 당시 고구려(신라라는 소수설도 있음) 사신을 비롯한 주변국 사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위 벽화 감상을 통해 무려 1,300년 이전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그 당시에 이란, 그리스, 로마, 터키지역 등 서방과 중국, 한국은 물론 멀리 일본까지도 사마르칸트를 비롯한 많은 실크로드 도상의 도시들이 서로 무역거래는 물론 인적 교류를 하면서 문화, 정치, 군사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았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새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만이 국제적 교류 또는 국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오만, 편견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점심 이후 호텔에 돌아와서 CAAs 총회 겸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등록을 마쳤고 우리처럼 등록을 하고 있던 다른 CAAs 회원국 대표단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였는데, 많은 참석자들이 작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CAAs 총회 때 직접 만났던 분들이었고 이번 회의 개최 이전에도 몇 차례 온라인 회의를 통해 서로 소통을 해 왔던 적이 있어서 서로 그간의 소식을 나누며 반갑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 일행들은 내일(9. 10.)과 모레(9. 11.) 회의에서의 발표와 토론 준비를 위해 숙소 호텔에서 각자 준비를 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4. 회의 첫날[2024년도 (제14차)CAAs 총회]

가. 아쉬웠던 CAAs 위원장의 총회 의사 진행

우리 일행은 다음날(9. 10.) 이른 호텔 조식 후 호텔 앞에서 오전 8시에 지정된 버스에 탑승하여 1시간 가량 이동한 후 사마르칸트시 외곽에 위치한 실크로드 바이 민윤(Silk Road by Minyoun) 호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2024년도 (제14차)CAAs 총회를 하였습니다.

위 호텔은 중국 자본이 투자하여 설립한 최신식 호텔이었는데, 회의장 내 세팅 자체는 중앙에 단상이 있고 바로 앞에는 CAAs 회원국 대표단을 위한 테이블이 4개 정도 배치되어 1개 테이블마다 2개 회원국이 자리를 하고 있었고, 우리 테이블에는 중국 대표단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뒷 좌석부터는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회원들과 UINL 소속 24개 회

원국 대표단, 그리고 UINL 집행부 등이 자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전체 참석자는 어림잡아 수백 명이 넘어 보였습니다.



먼저 단상에는 총회 의장인 CAAs 위원장과 UINL 회장, 이렇게 두 명이 앉아 있었으며, 의장이 총회 개회 선언을 하고 간단한 귀빈들 소개와 인사를 한 후, 곧바로 2025년부터 1년간 CAAs를 이끌게 될 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하여 2025년도에 공증분야 100주년을 맞게 되는 몽골공증인회의의 회장이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총회에서 아쉬웠던 점은 CAAs 위원장이 사전에 의제로 전혀 언급한 적도 없었던 회원국 상호 간 인턴십 제도, 공증인대학(내지 아카데미) 설립, 정기간행물 간행을 CAAs 정책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의제로 제안하면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CAAs 위원장은 이번 회의 개최 이전에 개최된 온라인 회의·이메일 서신 등으로

몇 차례 위와 같은 정책 채택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나, 번번이 대부분의 회원국 대표들이 재정상 부담 내지 업무추진 어려움 등을 이유로 완곡히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 배포된 총회 의제에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총회장에서 위원장이 갑작스레 위 정책추진 여부를 정식 의제로 제안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 내지 기습적인 공세로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위원장은 각국 대표단에게 찬성 또는 반대 의견표명을 요청하면서 아예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Yes”, 아니면 “No”로 의견 표명을 하라고 말해서 생각할 여유조차 주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당시 회원국 대표들로서는 수백 명도 넘는, 전 세계에서 모인 공증실무가, 전문가들 앞에서 아시아 지역 공증제도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위원장이 정책 채택을 사실상 압박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단지 찬성 아니면 반대라는 단답식으로 의견 표명을 강요당하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회원국 대표단들이 자국 대표단 내지 테이블에 동석한 다른 회원국 대표들과 사이에 심각한 표정으로 짧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일 왼쪽 테이블에 있던 회원국을 대표하여 일본공증인연합회 대표단이 걸으로 보아도 단단히 화가 난 표정과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우리는 No”라고 답변을 하였고, 곧이어 옆 테이블의 베트남공증인협회 대표단, 우리 테이블의 중국공증협회 대표단도 간단한 이유와 함께 모두 “No”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우리 일행들도 잠시 논의를 한 끝에 제가 대한공증인협회를 대표해서, 먼저 현재 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아시아 회원국 사이의 교류·협력 등에서 상당히 진전이 이뤄졌다는 덕담을 한 후, “대한공증인협회의 의사결정 절차는 회칙에 정해져 있고, 이에 따르면 CAAs 위원장이 제안한 정책과 같은 의제는 (상임)이사회 등에서 사전 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단이 현장에서 찬성·반대 결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후, 이런 이유에서 위원장이 제안한 정책 의제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아시아 회원국 대표단 다수가 의장의 정책에 반대함으로써 위원장의 정책 제안은 아예 의제 채택조차 되지 못한 채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백 명도 넘는 참석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것도 개최된 총회의 시작 부분에서 총회 위원장이 의욕만 앞선 채 무모하게 예정에 없던 정책 의제를 갑자기 제안하고 채택하려던 시도가 무산됨으로써 총회 분위기가 냉랭하게 바뀌었고 위원장과 각 회원국 대표단들 관계가 매우 어색하게 보이는 분위기도 상당 시간 동안 해소되지 못하였습니다.

나. 오전 회의, 오찬과 오후 일정 소개

곧이어 사전에 회원국 사이에서 이번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던 주제 즉, “전자공증과 관련한 각국의 제도 및 현황”에 대하여 각 회원국 대표들이 순서대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를 대표하여 박종순 협회장도 미리 열심히 준비한 발표 자료를 영어로 발표하였는데, 한국 공증제도의 디지털화 현황 및 법무부가 추진 중인 중인 전자공증의 고도화 작업 등을 정확히 소개하여 참석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휴식 시간도 없이 총회 회의와 각국의 공중 제도에 관한 발표를 마친 후 버스를 이용하여 시내 연회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점심 자리 테이블에는 주최 측의 사전 조율에 따라 아시아 회원국은 물론 UINL 집행부와 회의 참석자들이 섞여 식사를 하였는데, 우리 테이블에는 키르기스스탄, 불가리아, 투르크메니스탄 회원국 대표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일행은 식탁 테이블에 함께 하게 된 회원국 대표단 및 참석자들과 명함을 교환하고 식사하면서 각국의 공중 현황이나 개인 관심사 등을 얘기하며 정보교환은 물론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점심식사 후 회의 참석자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주최 측에서 사마르칸트가 자랑하는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레기스탄, 아미르 티무르의 무덤 및 중국 당나라와 사라센 연합군이 서기 751년 탈라스 전투를 벌인 후 중국의 종이 제조 기술을 계승·발전시켰다는 사마르칸트 내 종이 만드는 곳 등을 안내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다. 저녁 만찬 및 아쉬운 레이저 쇼 관람

주최 측은 곧바로 참석자들을 다시 버스에 태워 저녁 7시 30분경 시내에 있는 Sangiza 라는 레스토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찬을 대접하며 민속무용과 가요 등 공연을 보여 주었습니다.

주최 측은 동서양 진수성찬을 준비하였는데, 다만 메인 음식과 디저트 격인 과일, 과자 등이 동시에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올려 있었으며 특히, 준비된 음식이 너무 많아 2중, 3중 높이로 음식이 놓여 있었고, 과일 등도 그냥 껍질째로 접시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이나 과일이 있어도 행여 음식이 떨어질까 봐 음식을 집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욱 난감했던 상황은 원래 저녁식사를 9시 30분까지 한 후 이동하여 레이저 쇼를 10시 30분에 마치고 각자 숙소로 복귀한다고 안내가 되었는데, 막상 저녁 만찬행사는 밤 10시 30분경에 끝났고, 주최 측은 그제서 레이저 쇼를 관람한다고 이동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시차 적응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최소 오전 7시경부터 기상해서 1시간 이동, 오전에만 4시간 이상 회의를 하였고, 점심식사 후 3~4시간 시내 관광 후 다시 저녁 만찬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3시간을 하면서 이미 몸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주최 측은 밤 10시 30분부터 다시 장소를 이동해서 최소 1시간 이상 레이저 쇼를 관람하고 복귀한 다음, 그다음 날부터 또다시 오전 8시부터 회의를 한다고 공지를 하였는 바, 우리 일행들은 이미 몸이 녹초가 된 상태에서 서로 논의한 끝에 레이저 쇼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곧바로 주최 측에 다음날 회의 발표 준비 등을 핑계로 곧바로 우리 숙소 호텔로 복귀하였습니다(실제로 레이저 쇼는 다음 날 새벽 1시 30분쯤 지나 마쳤다고 하였음).

이날 일정에 대한 개인적 소감으로는 아무래도 회의 주최 측인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가 자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발전 모습 등을 수많은 나라의 대표단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싶은 욕심이 지나쳐, 과할 정도로 관광지를 소개하고, 극진할 정도로 만찬 음식 대접을 하는 바람에 정작 대표단 내지 참석자들의 여행 시차, 긴 회의 등으로 인한 피로감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최 측이 형식·외양·실적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대규모 회의의 궁극적 목적, 실질을 도모하는 데는 매우 소홀하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5. 회의 둘째 날(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주최 제4차 국제회의)

가. 오전 일정 소개(제4차 국제회의)

두 번째 회의 날(9. 11.)도 어제처럼 아침 8시에 버스에 탑승하여 어제와 같은 호텔로 이동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가 주최하는 제4차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단상에는 UINL 회장과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점은 UINL 회장은 당연하겠지만, 법무부장관도 4시간 30분간 계속된 회의시간 내내 통역 내지 자동번역기를 통해 회의 내용을 경청하며 자리를 지켰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차원에서 위 국제회의 내지 공증인회의 행사를 매우 관심 있게 치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된 국제회의에서는 주최 측에서 사전에 공지한 주제, “각국 상속등기의 특수성”에 관하여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회원국은 물론 멕시코, 포르투갈, 베냉 등 CAAs 회원국 이외 UINL 소속 10개 회원국에서 참가한 공증인 및 국제공증인연합회를 대표한 독일연방공증인회 소속 CCNI(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도 대한공증인협회를 대표하여 “한국 공증에 의한 유언 및 그로 인한 특징”에 관하여 15분 정도 영어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후 1시 30분 회의 종료 후,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가 주최하여 멕시코공증인협회 등과 공증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이 진행되었고, UINL 회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으며, 그 후 각국 회원국 대표들, 참석자들 사이에 기념 촬영이 이어졌는데, 우리 협회는 몽골, 세르비아, 불가리아 협회 대표단, 키르기스스탄 출신 참석자 등과 기념 촬영을 하였습니다.

나. 점심 이후 일정 및 저녁 만찬

어제 점심과 같은 방식으로 시내 Samarkand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주최 측의 주선으로 오래전 티무르 제국의 귀족들 무덤을 모신(일종의 한국, 일본 등의 사당

같은) 사히진다 묘소 및 성서의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다니엘 묘소(영묘)를 방문한 후 숙소 호텔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후 저녁 7시 30분경 어제 호텔이 아닌, 다른 ‘로얄’ 호텔로 이동하여 다시 만찬 및 환송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 테이블에는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대표단 부부들과 합석을 하였는데, 그날 만찬에 제공된 진수성찬이 어제 저녁 만찬 메뉴와 거의 동일하였고, 그 제공 방식도 어제와 동일하여 참석자들 일부는 다소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만 저녁 만찬 후 환영 행사에는 유명한 가수가 출연하여 여러 국가의 노래를 불렀는데, 부르는 노래마다 그 나라의 가사까지 제대로 발음하며 노래도 잘 불렀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들은 해당 국가 회장들이 너무 좋아해서 가수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흥겨운 노래가 나올 때는 무대로 나가 춤도 추는 등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거의 2시간 정도 만찬 행사가 진행되어 참석자들 모두의 관심이 거의 식어가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한국 노래, 그것도 1976년 발표한 가수 박상규의 노래 “친구야 친구”를 그 가수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행도 마침 그 시점에는 분위기에 취해 흥겨운 상태였는데, 멀리 타국에서 그것도 외국 가수가 유창한 한국어로 전혀 생각지도 않은 한국 가수의 노래를 흥겹게 부르는 것을 듣게 되니 저절로 무대로 달려 나가서 가수와 함께 노래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춤도 추며 신나게 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노래 열창을 끝으로 노래 부르는 행사가 막을 내렸고 곧바로 댄스, 춤추는 행사가 시작되어 거의 1시간 이상 여러 나라 가사로 된 댄스곡이 큰 소리로 울려 퍼지자 무대에는 여러 회원국 대표들, 참석자들이 달려 나와 춤을 추었고 나중에는 댄스 경연도 하는 등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날도 밤 10시 30분에 행사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것으로 통지가 되었지만 이미 시간이 거의 밤 10시 30분에 이르러 여전히 댄스파티가 계속되자 60대 중반을 모두 넘은 나이의 공증인들로 구성된 일본공증인연합회 대표단들이 주최 측에 먼저 숙소로 복귀하겠

다는 얘기를 하였고, 주최 측 만류에도 불구하고 숙소 호텔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 바람에 만찬 장소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는데, 그 후 30분도 지나지 않아 만찬 행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우리 일행이 숙소로 복귀하니 밤 12시가 지난 시간이었음).

6. 회의를 모두 마친 다음 날 일정(몽골공증인회와 점심 및 자유시간)

이틀 동안 회의와 만찬 행사 등으로 지쳤던 우리 일행들은 그다음 날 오전은 각자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고, 어제 만찬 행사에서 갑자기 몽골공증인회와 다음 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해서 숙소 근처 조그만 식당에서 몽골공증인회 회장 등과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몽골공증인회 회장은 내년 몽골에서 개최하는 2025년도 CAAs 총회 및 국제회의에 대한공증인협회가 꼭 참석하여 줄 것과 함께 앞으로 두 협회 차원에서 상호관심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의와 지원·협조를 요청하였고, 몽골공증인회 측에서 점심 식사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 일행들은 숙소 호텔 인근에 위치한 사마르칸트 국립대학 구내를 잠시 산보를 하고 숙소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 또 사마르칸트시 공증인회 직원이 차를 타고 와서 우리를 사마르칸트역까지 차로 태워 주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그날 저녁 7시경 다시 타슈켄트역에 도착하여 처음 타슈켄트에 도착했을 때 묵었던 호텔에 다시 체크인을 하였고, 그날 저녁은 그 호텔에서 제가 장거리 여행, 회의 참석 등으로 수고가 많았던 회장님, 사무국장님에게 제 딸 결혼식을 축하해 주어 고마웠다는 평계를 대고 조출한 저녁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7.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타슈켄트 시내 자유일정)

어제까지 사마르칸트에서 회의 참석 등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날 오전에는 아침 식사를 느긋하게 마친 후, 12시에 타슈켄트 시내 중심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호텔” 앞에 위치한 버스 투어 장소로 이동해서 약 2시간 정도 버스 투어를 하였습니다. 이후 오후 2시경 한국 식당에서 간단한 점심식사를 한 후 숙소 호텔로 돌아와 체크아웃을 하고 타슈켄트 공항으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항공편 연결이 1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계속 대기하다가 밤 11시가 되어서야 출발하였고 한국 시간으로 14.(토) 오전 9시경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8. 마치며

이번 CAAs 총회 겸 국제회의를 참석하고 무엇보다 강하게 받은 인상은 한국과 비교할 때 국제사회에서 대부분 공증 국가들이 온갖 부동산거래 시 관련 계약서 등 문서에까지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는 등 공증 업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그로 인하여 공증인의 위상도 일반적인 변호사보다 높다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한국 정부, 사회가 디지털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적어도 선도적 지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공증제도의 디지털화에 관해서는 일본은 물론 중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우리나라에 비해 덜 발전되었다고 생각한 국가들에 비하여 디지털화가 뒤쳐져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어 우리 협회도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함께 분발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지극히 개인적 소회로는 이번 우즈베키스탄 특히 사마르칸트라는 도시에서 겨우 며칠을 보낸 후 사회 인프라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고 나니 선진국이 되어 버린 한국에 오래 살면서 익숙해져서 몰랐는데, 다른 나라, 특히 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은 도시에서 잠시 생활하다가 귀국해 보니, 예컨대 지내는 곳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고 대중교통이 잘 설치되어 있는 사회가 얼마나 편리하고 장점이 많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도인 타슈켄트는 이미 한국 도시처럼 편의점도 많고 지하철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르칸트라는 도시는 세계적 관광·역사 도시로 유명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

하지만, 지하철이 없고 대중교통인 버스, 택시도 많지 않아서 지나가는 일반 개인 자동차 운전자와 협상을 해서 택시처럼 이용해야 하고 편의점·슈퍼마켓도 흔하지 않아 시내 약간 외곽에 있는 큰 재래시장(바자르)에 가야만 일용품, 식품 등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물론 일상 생활하는데 제약·한계가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의 준비를 위해 몇 달 전부터 항공편 및 아프로시압 기차표 예매, 호텔 예약을 잘 하였음은 물론 특히 우즈베키스탄 여행에 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우리 협회 직원들의 수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회의 참석,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기에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협회 대표단을 비롯하여 아시아지역 회원국 대표단, 참석자들을 위해 회의, 만찬 행사 등 전 일정, 행사 준비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 정성을 다한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와 직원들 및 특히 CAAs 위원장의 열정·헌신에도 마지막으로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